선거명	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	
후보자명	이석현	기호	2	소속정당명	민주통합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판교~안양~광명~월곶 복선전철의 조속한 건설				

■ 정책목표

- 원활한 교통 위해 복선전철의 조속한 건설 추진
- 비산권과 관양권에 각각 지하철역 건설

■ 현황

현재 판교~안양~광명~월곶 복선전철 자체는 타당성조사의 B/C값이 1.03으로 합격점수이나, 이 복선전철과 연계될 경기GTX 계획과의 연관성을 포함한 타당성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,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.

18대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 5개시 여·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했던 '국회 복선전철 추진모임'은 최종결과가 나오는대로, 신속히 기본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추진을 약속받은 상태임.

■ 추진계획

새 국회 개원 즉시, 전철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5개시 여·야 당선의원들로 '복선전철 추진모임'을 재결성하고, 여야를 초월하여, 금년설계, 내년착공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모을 것임.

또한, 동안구 지역 비산권과 관양권에 전철역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여, '내 집앞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안양시 동안구'를 만들어 나가겠음.

공약번호: 2 공약 제목 : 학교폭력 근절 및 학교가지 않는 주말에 돌봄 대책 마련

■ 정책목표

- 학교폭력 근절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등교시키는 안양만들기
-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주말에도 학생들을 책임지는 안양만들기

■ 추진방향

-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급학교에 담당경찰관 대폭 증원
- 안양시청 U-통합상황실과 동안경찰서 치안상황실 연계 구축 추진
- 이제 '갈토'가 없어져 학교가지 않는 날이 175일이나 되는데,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는 걱정이 태산임. 아이를 돌봐야 할 시간은 더 늘고, 학원비 부담도 늘어나기

때문. 안양시, 안양교육청, 학부모와 함께 하는 '희망 175일 공동협의체'를 구성. 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,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음.

■ 추진계획

- 현재 각 학교별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을 1인씩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였으나, 기존업무도 봐야 하는 경찰관에게는 업무과중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,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다분하므로, 학교 인근 파출소 및 지구대가 함께 이를 관리하도록 중복배치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동안구 전체에 배치된 실버 폴리스가 단 10명에 불과하므로, 이를 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. 그리고, 현재 30만원에 불과한 수당을 현실화하겠음.
- 안양시 U-통합상황실과 동안 경찰서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'치안상황실 통합운영을 위한 예산 1억8천만원 확보

공약번호: 3 공약 제목: 4호선 전철,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을 현재 7분에서 3분으로 단축

■ 정책목표

현재 지하철 4호선 열차의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은 서울 사당역은 2~5분이나, 우리 안양은 5~9분(평균 7분)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

■ 현황

지하철 4호선은 당고개~사당간 운행이 가능한 직류전동차가 26편, 당고개~안양~오이도간 운행이 가능한 교류전동차가 51편 등 총 7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사당에서 돌아가는 직류전동차를 교류전동차로 교체해야 안양까지 운행이 가능

■ 추진계획

직류전동차 한 편성을 교체하는 데,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15~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작사 측에서 예상하고 있음. 직류전동차 26편성 전체를 교류형으로 개량하는데, 39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.

(인건비 및 부대비용 별도)

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, 신규전동차 도입시 교류형을 도입하고, 단계적으로 직류전동차를 교류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음. 이를 통해, 우선적으로 출퇴근시간의 전동차 배차 간격을 현재의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음. 공약번호: 4 공약 제목 : 각급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

■ 정책목표

- 체육관이 없어 황사 및 우천시나 폭염때 실외체육수업을 못하고 행사도 곤란하므로 다목적체육관을 거립.
-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평생체육 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도 제공.

■ 추진방향

-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계획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관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추가희망 학교 전수조사 실시
-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받아 안양시예산을 보태어 부림중·부안초가 함께 쓰는 '부림관'을 이미 개관했고, 비산중도 수년전에 국비 9억원을 받아 안양시 예산과 함께 체육관을 개관했음.

■ 추진계획

- 1) 임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: 본 의원의 호소로 이미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7천만원을 배정받아 돈이 안양시에 내려왔음. 이를 바탕으로 체육관 건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양시로부터 추가 지원방안 모색.
- 2) 부흥초, 부흥중 다목적체육관 : 2012년 상반기에 신청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8천만원이 총선직후 확보될 수 있도록 안양시와 함께 추진중임.
- 3) 부안중 다목적체육관: 2012년 상반기에 신청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3천만원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8억6백만원 확보위해 노력중임.
- 4) 인덕원고 다목적체육관 :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체육관 건립예산에 대한 교육부특별교부금 지원 추진.
- 5) 관악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
- 6) 관양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
- 7) 기타 희망학교에 대한 체육관 건립 등 시설개선사업 지원할 계획

공약번호: 5 공약 제목 : 안양, 의왕, 군포 3개시 통합 추진

■ 정책목표

- 안양, 의왕, 군포 3개시 통합과정에서 갈등 조정 및 원활한 추진 도모
- 통합 이후,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

■ 혀황

- '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안양, 의왕, 군포 각 시별로 구성된

통합추진위는 주민들의 통합찬성 서명을 받았고, 2011년 12월 3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했음.

- 위원회는 2012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됨.

■ 추진계획

- 통합방안 제출시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.
- 2013.6~2014.6월간 국회에서 진행될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 제정과정에 본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,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.
- 2014년 7월로 예정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, 통합인센티브와 기반시설 등의 배치 및 통합청사 등의 공공시설 설치 과정에서 갈등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의견 조율.
- 현재까지 광역시 승격에 대한 객관적 입법기준이 없으므로, 입법화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적 지원방안 모색.